Stop & Clean
불법 스포츠 도박 추방 캠페인
“불법 스포츠 도박,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관련기사 12면

스포츠동아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포항에 뿌리내린 팀 문화
황선홍 감독의 작별 선물
6면

FA 미친 몸값…야구판이 흔들린다

최저연봉 2700만원 시대…어제 하루 FA 4명 몸값만 ‘253억원’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과열되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3루수 박석민(왼쪽)은 30일 NC와 4년 최대 96억원에 사인했고, 좌완 불펜 정우람은 한화와 4년간 84억원에 계약했다. 스포츠동아DB

중계권 파이 줄고 관중수입도 한계인데 FA선수들은 제 몸값 높이는데만 신경 “시장논리 좇다 공멸” 야구계서도 비판

11월의 마지막 날, 프리에이전트(FA) 몸값 총액만 253억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이적 시장이 열렸다. 이날 하루 한화가 정우람(30)과 심수창(34)을 영입하는 데 쓴 몸값(보상금 제외)만 97억원에 달한다. NC는 박석민(30) 1명을 데려오는 데 96억원(옵션 10억원 포함)을 썼다. 롯데는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윤길현, 손승락을 위해 98억원을 뿌렸다. 가히 ‘돈폭탄’이 FA 시장을 덮치고 있다. 원 소속구단 잔류 선수 11명(총액 334억7000만원)과 타 구단 이적 선수 7명(총액 383억원)의 몸값을 합치면 717억7000만원에 달한다. 역대 FA 최대 돈 잔치인 것은 물론, 김현수(28)와 오재원(30·이상 전 두산)까지 가세하면 이 액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상황이다.

●거품도 사야만 하는 시대

삼성이 2005시즌을 앞두고 FA 심정수(4년 60억원)와 박진만(4년 39억원)을 영입하자 ‘이러다 야구판 망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2007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김동주가 당시 소속팀 두산의 4년 60억원 제의를 거절했을 때 야구계에선 ‘현대 유니콘스의 가치가 60억원인데 말이 되느냐’는 충격적 반응 일색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특A급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이택근(넥센), 2012년 11월 김주찬(KIA)의 50억원 계약을 기점으로 이제 FA는 거품도 사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야구단 운영비는 눈먼 돈이 아니다!

A구단 단장은 30일 “이러다가 한순간에 감당이 안돼 판이 깨질 수 있다. 육성을 한다고 2군 구장을 지어놓았다.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용만 30억~40억원이다. 이래놓고 FA에 또 돈을 쓰니, 야구단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야구계의 한 인사는 “낙하산 사장이 자기 임기 때 성적을 내서 그 자리에 더 오래 있으려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인사는 “시장원리도 맞지만, 이러다 공멸한다. 방송중계권만 해도 이제 8팀이 아니라 10팀이 나눠 가져서 몫이 줄어든다. 관중 증가도 임계점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법은 프런트의 전문성에 입각한 장기 비전뿐이다. 한 단장은 “선수 수급을 보고 우승 전력이면 베팅할 만하다. 그러나 야구가 선수 1명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구단이 경쟁적으로 이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간 야구단 운영비가 400억원을 웃도는 시대다. 모기업의 지원도 한계에 임박했다. 야구를 알고, 상황을 컨트롤할 프런트의 통찰력이 절실한 시대다.

●심화되는 양극화

사실상 100억 선수가 속출하는 시대에 정작 최저연봉은 2700만원이다. 1982년 1200만원으로 시작해 33년 동안 1500만원이 올랐을 뿐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미미하다. 야구 생태계를 고려할 때 야구인 전체가 심각하게 느낄 일인데, 돈 많이 받는 데만 관심이 쏠린 분위기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박충식 사무총장은 “KBO와 구단을 비롯한 야구계 전체가 최저연봉과 은퇴 후 연금 증액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 미친 몸값에 기름 부은 NC·한화 2면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오늘 2015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

국내 5대 프로스포츠의 최고 선수를 뽑는 ‘2015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이 1일 오전 11시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동아스포츠대상 영광의 얼굴들. 스포츠동아DB

선수들이 뽑는다…올해 최고의 별은?

동료들이 직접 뽑는 국내 유일의 최고 선수상 5대 스포츠 293명 투표…김인식 감독 특별상

선수들이 직접 뽑은 ‘2015년 최고의 선수’는 누구일까요?

정상의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남녀), 프로배구(남녀), 프로골프(남녀) 등 국내 5대 프로스포츠 종목별 ‘최고의 선수’를 한 자리에 모으는 특별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15 동아스포츠대상’은 스포츠동아, 동아일보, 채널A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5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직접투표로 해당 종목의 ‘올해의 선수’를 선정하는 획기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연맹(또는 협회)의 운영 및 홍보 담당자로 구성된 동아스포츠대상 운영위원회를 통해 종목별 ‘올해의 선수’ 후보 및 투표인단을 확정했습니다. 수상자를 뽑는 투표인단은 총 293명으로, 종목별 30~50명의 선수가 참여해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수상자는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됩니다.

특히 올해는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에서 한국의 우승을 지휘한 야구국가대표팀 김인식 감독(사진)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 감독은 역대 최약체 대표팀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준결승에서 숙적 일본에 극적인 4-3 역전승을 거두는 등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에 올라 한국야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 포시즌스호텔서울(광화문 사거리)
●**주최** : 스포츠동아 동아일보 CHANNEL A
●**후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케이토토,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시상 부문** :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 ▲프로축구 올해의 선수 ▲프로농구 올해의 선수(남녀) ▲프로배구 올해의 선수(남녀) ▲프로골프 올해의 선수(남녀·이상 상금 각 500만원) ▲특별상(야구국가대표팀 김인식 감독)

이영애 “500년전 ‘사임당’의 고민, 지금도 똑같다”

12년만에 드라마 ‘사임당’으로 TV 컴백

‘아내, 엄마, 연기자 그리고 이영애’

12년 만이다. 2004년 드라마 ‘대장금’ 이후 안방극장에서 좀처럼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이영애가 오랜 공백을 끝내고 시청자들 앞에 선다. 내년 방송예정인 SBS 드라마 ‘사임당 허 스토리’(사임당)를 통해 컴백하는 그의 얼굴에서 긴 공백의 부담과 동시에 설렘이 엿보였다.

11월30일 강원도 강릉의 ‘사임당’ 촬영현장에서 만난 이영애는 공백동안 ‘아내’와 ‘엄마’로서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조용한 말투로 ‘연기자 이영애’보다는 엄마의 모습을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엄마’의 연장선에 ‘사임당’이 맞닿아있다는 것이다.

이영애는 2009년 사업가 정호영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깊어졌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를 오히려 결혼 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임당의 이름을 빌어서 여자의 삶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500년 전 조선시대에 살았던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사임당의 고민은 시대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다.

손승헌(왼쪽)과 이영애가 11월30일 열린 SBS 드라마 ‘사임당, 더 허스토리’ 촬영 현장공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릉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10면으로 이어집니다

강릉 |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대리운전-
전화나 앱으로 콜하는
구닥다리 방식을
던져 버렸다

YTN-TV 방영으로
성공사업 입증!!
YTN
YTN에 대리운전 호출시스템에 최첨단 NFC 기술력이 결합된
본 NFC 대리운전 스마트콜이 소개, 방영되었습니다

세계유일 독보적 기술 NFC 터치방식 스마트콜
대리운전 전국 대리점 大모집!!

스마트콜 사업설명회
한정된 좌석관계로 30분 선착순 배정합니다.
일시 :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2-1 정일빌딩 202호

5조원대 시장규모의 대박사업!! 1,990만원 투자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밤부터 동이 틀때까지
수익이 차곡차곡 – 평생 월급같이 안정된 수익, 무경험 일반인도 대박창업

대리운전비 수수료 10%가 평생 내통장으로 따박따박 – 스마트콜 대리점 사업

◆ 대리운전 콜 방식으로는 세계최초, 세계유일의 NFC 전자태그 방식
(주)판타블로스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시스템 스마트콜(Smart Call)은 전화를 걸거나 일일이 어플을 찾아 실행시키고 누를 필요 없이 업소 테이블, 출입구 등에 부착된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대리운전이 자동 호출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광고없이 입소문과 소개만으로 연결된 대리점주들이 한결같이 안정된 고소득을 올리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인 전국 대리점 구축에 나섰다. 전국 통틀어 오직 250개 지역에서만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 전업, 부업.투잡 // 無노동, 無영업, 無경험, 無기술 OK
최근,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스마트콜 대리점을 개설하고 운영 중인 대리점주 김모(39)씨는 스마트콜 사업에 대해 호평 일색이다.
“이제, 두달 남짓되었는데 수익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저는 별도로 일 할게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일과 병행해서 할 수 있고 대리운전 사업으로 올린 수익은 고스란히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라며 사업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다.
이 사업이 특히 좋은 점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 투자없이, 어두워질 때부터 해 뜰 무렵까지는 내가 놀고 있어도 자고 있어도 끊임없이 차곡차곡 돈을 벌어주는 사업아이템이라는 점이다. 한번 태그부착 및 설치 후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장점도 있다. 대리점 개설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착순으로 원하는 지역을 우선 선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먹거리 타운, 유흥가가 많은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관계자는 귀뜸한다.

■ BM특허출원 10-2015-0006745 전자태그 호출 – 업소에 부착된 NFC 태그에 내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자동 호출
■ 본사에서 50군데의 우수 가맹점(식당 주점, 유흥업소) 섭외 및 태그부착 완료
■ 대리운전 비용의 10%수익
20,000원 요금 시 대리점 몫 2,000원
—> 하루 한 가맹업소에서 최소 2회만 콜이 되어도 2,000원*2회*50곳의 가맹점*30일 = 월수익 600만원
상권좋은 먹자 골목에 위치한 가맹업소를 갖은 경우는 한 곳 에서만 하루 3~4콜 이상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사업문의
02) 470-5122
NAVER 스마트콜
www.nfccall.co.kr